



루비와 쿠키의 특별한 산책

최수연



따스한 아침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자, 호기심 많은 강아지 루비와 얇전한 고양이 쿠키가 나란히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두 친구가 함께 동네 산책을 떠나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루비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현관문 앞에서 쿠키를 재촉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세상이 두 친구를 반겨주었습니다. 루비는 쿵쿵 냄새를 맡으며 앞장서 걸었고, 쿠키는 그 뒤를 조용히 발걸음을 맞추며 따라갔어요. 담벼락 위에서 비추는 햇살이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자 바람에 날려온 형형색색의 낙엽들이 길가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루비는 낙엽 속으로 꺽충 뛰어들며 신나게 뒹굴었고, 그 모습을 본 쿠키는 꼬리를 둥글게 말고 흥미롭게 지켜보았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숲속 음악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동네 작은 공원에는 푸른 잔디와 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가에 다가가자 물속에서 헤엄치는 작은 금붕어들이 보였고, 쿠키는 몸을 낮추어 신기한 듯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루비는 물가 주변을 뱅글뱅글 돌며 신나게 짚었습니다.



연못 옆 커다란 참나무 그늘 아래에 도착한 두 친구는 잠시 숨을 고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루비는 혀를 빼꼼 내밀고 헉헉거렸고, 쿠키는 풀밭에 우아하게 엎드려 시원한 바람을 즐겼어요.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두 친구의 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풀숲 사이에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살랑살랑 날아와 두 친구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쿠키는 앞발을 살짝 들어 올려 나비를 잡으려 장난을 쳤고, 루비는 그 모습이 즐거운지 덩달아 꺾충 뛰어올랐어요. 나비는 푸른 하늘 위로 가볍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산책길이 끝날 무렵,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알록달록한 지붕들과 포근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루비와 쿠키는 나란히 앉아 이 멋진 풍경을 눈에 담으며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절한 이웃집 할머니가 두 친구를 위해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셨습니다. 루비는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간식을 먹었고, 쿠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유를 훌쩍였어요. 산책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노을빛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비와 쿠키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듯 편안한 눈빛을 나누었어요. 함께 걸었던 길마다 따뜻한 추억이 방울방울 맺혔습니다.



포근한 거실 카펫 위에 나란히 웅크려 누운 루비와 쿠키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둘은 나란히 손을 잡고 끝없는 꽃밭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든 두 친구의 밤은 평화롭고 깊어만 갔습니다.